

# 광주 신창중 “교내 벽화로 장애 인식 개선해요”

교육동아리 '모모신창' 학생들이 벽화 그려

'모습은 달라도 우리 모두 꽃'이라는 가사 인용... 차별 말자는 메시지 전달 장애인식 개선 활동·프로그램 실시

광주 신창중학교 학생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교내 벽화를 그려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창중 통합교육동아리 '모모신창' 소속 학생 20여명은 최근 '모두 다 꽃이야'라는 제목의 학교 내 벽화를 완성했다.

본관 2층 특수학교 앞 실내공터에 가로 18m × 세로 2.7m 크기로 그려졌다.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구상에서부터 3개월여에 걸쳐 벽화를 완성했다.

학생들은 벽화의 중심에 '모두 다 꽃이야'라는 곡의 가사를 인용해 '산에 피어도 들에 피어도 길가에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우리는 모두 다 꽃이야'라는 문구를 적었다.

신창중은 앞으로 완성된 벽화를 배경으로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활동 및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내에 장애 인식 개선 벽화를 그린 신창중 통합교육동아리 '모모신창' 소속 학생들. <신창중 제공>

정이다 '모모신창'은 장애와 비장애로 나누는 사고방식을 넘어 모두 모여 재미와 의미를 찾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2학년 권대재 군은 "이 벽화의 꽃처럼 우리 모두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각자가 고유의 아름다

움을 가진 한 송이의 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희성 교장은 "이 벽화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장흥 수해 복구 봉사



한국수자원공사 영·섬본부(본부장 양진식)는 지난 9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흥군 대덕읍 동동마을을 찾아 복구를 도왔다.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제공>

# 전물군경유족회 광주지부, 불우 회원들에 후원금 전달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광주지부(지부장 이연산)가 최근 신한은행 차성중 호남본부장이 협찬한 후원금 100만원을 회원 20명에게 전달하고 쌀(10kg) 10포를 회원과 나눴다.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광주지부 제공>

# 인사

- ◆광주시체육회
  - 일반3급 ▲체육운영본부 문부홍 ▲시민체육본부 강병욱
  - 일반4급 ▲경영지원부 박지은 ▲시설관리부 노치일 ▲경기운영부 안재오 ▲시민체육부 홍은주
  - 일반5급 ▲기획총무팀 박정훈 ▲월드컵팀 조태현 ▲무동팀 나성현 ▲진월팀 전정민 ▲경기운영팀 선형근 ▲경기관리팀 박성복 ▲시민체육진흥팀 노찬완 ▲시민체육사업팀 박성용 ▲공정감사팀 고익상
- ◆한국전력
  - 1(가)직급 이동 ▲감사실장 유익
- ◆소방청
  - 소방준감 전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고민자

# '법조 내 재야' 이홍훈 前대법관 별세

이홍훈 전 대법관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전북 고창 태생인 이 전 대법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 4기로 1977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정통 엘리트 법관이면서도 '법조 내 재야'로 불릴 만큼 진보·개혁 성향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다.

판사 시절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의 처벌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적용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011년 4월 22일 '4대강 사업 집행경지 신청'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그가 내린 신청 기각 반대결정은 법조계에서 아직 회자할 정도로 유명하다.

이 사건 주심인 이 전 대법관은 "환경문제가 포함된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4대강 사업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과 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2년 동안 서울대학교 법학 이사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 원불교 前광주전남교구장 연타원 박성석 원정사 열반

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을 지낸 연타원 박성석 원정사가 지난 9일 열반했다. 세수 88세, 법랍 68년.

1942년 원불교에 입교한 연타원 종사는 1953년 출가한 뒤로 50여년 간 전국의 원불교 교당과 기관에서 생활하며 원불교를 알리는 데 헌신했다.

그는 광주전남교구장을 비롯해 전남청소년수련원장, 진도청소년수련관장 등을 지냈고, 2003년 퇴임했다.

고인은 라면이나 국수로 끼니를 대신하며



고창교당, 고부교당, 이양교당 등 10여개 교당을 신실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원불교측은 전했다. 후진양성에도 각별해 다수의 교무를 배출했고, 원불교 최초의 네팔 출신이자 브라만 계급인 원정사 교무를 8년간 후원하며 네팔 지역에 원불교를 알리는 데 공헌했다는 평을 받는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이 맛에 산다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속아도 꿈결(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손헌주의 간이역 스페셜	10 SBS 뉴스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멀리서 보면 푸른 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토론키 35 월드 3쿠션 그랑프리 2021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행복설계 일빠배기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연중 라이브(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미니다Q(재)	00 KBS 뉴스타임 10 뱅글스쿨(재)	20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크(재) 50 류수영의 동물티비(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10 최중우돌 만국 유망기 캠핑 인 코리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섬마을 할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타치!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빨강 구두	05 다크플렉스 스페셜 <전원일기 2021>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백종원 클래스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멀리서 보면 푸른 봄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40 개는 훌륭하다	30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X 스페셜	00 라켓소년단
11	00 더 라이브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다크 인사이트(재)	10 스튜디오 K 35 영상앨범 산(재)	05 스포츠 매거진 45 지도의 뒷면 -당신이 몰랐던 우리 동네 이야기	4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세미와 매직큐브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 호기심딱지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쇼
07:00 코요태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35 자이언트 팽TV
07:30 꼬미와 베베	14:10 EBS 다크프라임	19:50 다류영화 길 위의 인생
07:45 숲속 배달부 빙빙	15:05 지식채널e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댕동댕 유치원	15:15 클래스e	<세계 문화 답사기
08:30 출동! 슈퍼왕스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미스터리 마야, 멕시코>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50 가만히 10분 명TV	21:30 한국기행
09:00 뽕뽕뽕 뽕뽕로	16:00 마사와 꿈	<내 인생에 한 번쯤 1부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15 개구쟁이 조이	7 마녀가 사는 법>
09:30 우당탕탕 아이큐	16:30 댕동댕 유치원(재)	21:50 EBS 다크프라임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어클 다이어리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23:35 클래스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2일 (음 6월 3일 辛酉) ☎ 010-9790-8237

<p>36년생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다. 48년생 속단은 후회나 실패를 몰고 올 것이다. 60년생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도록 하자. 72년생 아울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84년생 기사유역의 이치에 의해서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로 바뀌리라. 96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 한다면 뒷일이 수월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38, 67</p>	<p>42년생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54년생 계기가 이뤄지지 않아서 종국적으로는 연결되지 못한다. 66년생 추구에 왔던 바와 정반대의 환경에 놓인다. 78년생 실속 없는 것과 관련된다면 곤란해진다. 90년생 노고를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발생하는 동세이리라. 02년생 천명은 하늘에 있나니, 소신껏 행하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29, 82</p>
<p>37년생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게 될 것이다. 49년생 여럿이 모여서 떠들썩한 성국이다. 61년생 결집 속에 피어난 자생력이 이 근간을 이룰 것이니 현태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자. 73년생 기다리던 소식 대신 더 중대한 위치에 이른다. 85년생 징후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예견할 수 있으리라. 97년생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94</p>	<p>43년생 핵심 사항을 놓치지 않아야 대국을 조성할 수 있다. 55년생 정진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67년생 목적에 부합 한다면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이롭다. 79년생 힘들인 만큼 비례하여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91년생 행동에 제약이 받게 되는 요인이 발생한다. 03년생 가장이 실제의 상황이 된다. 행운의 숫자 : 44, 59</p>
<p>38년생 상대의 마음 씀씀이가 자신의 심리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50년생 뭉은 고압프터라도 마음은 평안하다. 62년생 여럿이 모여서 떠들썩한 성국이다. 74년생 입을 다물고 마음속으로만 싸여야 하는 장면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86년생 노심초사하며 우려해 왔던 사건이 실제로 터지겠다. 98년생 차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1, 76</p>	<p>32년생 연쇄적인 효과를 보게 되면서 작용력이 커진다. 44년생 예견되는 위험은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조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역하기 힘들 것이다. 68년생 살기 된 것을 회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리라. 80년생 진정한 마음의 전달이 전환점을 마련한다. 92년생 의외로 복잡한 국량이다. 행운의 숫자 : 33, 98</p>
<p>39년생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1년생 외관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63년생 객관적인 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75년생 완전하지 않다면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87년생 완전히 반전 될 수도 있는 기운이다. 99년생 다수자의 의사에 휩쓸려갈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서 대응하라. 행운의 숫자 : 19, 78</p>	<p>33년생 합리적으로 운용해 나간다면 부가 따른다. 45년생 좋은 마무리는 큰 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다. 57년생 기회란 자주 오지 않는 법이니 포착하는데 민첩하라. 69년생 주체적으로 고려한 후에 과단하라. 81년생 평정이 보인다면 즉시 보완하는 것이 옳다. 93년생 기대에는 못 미치지겠지만 큰 참을 결과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0, 54</p>
<p>40년생 복잡함을 동반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다. 52년생 쉽게 정답한다면 머지않아 곤란에 처해진다. 64년생 경험자의 지혜를 빌린다면 진척이 빠르다. 76년생 고강한 결단을 한다면 발전을 도모할 것이에 틀림없다. 88년생 다시 한 번 점검 해봐야 한다. 00년생 전연 뜻밖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32, 93</p>	<p>34년생 처음부터 뚜렷이 구분 될 것이다. 46년생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 58년생 막힌 물꼬가 시원하게 트이는 이치이다. 70년생 앞뒤를 잘 가리어서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82년생 과거의 관행과 전형을 따랐을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 94년생 상호 교체한다면 발전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만하다. 행운의 숫자 : 40, 72</p>
<p>41년생 주의를 다 하지 않으면 흉사가 벌어지겠다. 53년생 중심을 잡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리라. 65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이가 생길 수도 있다. 77년생 기준에 입각하여 착실히 임한다면 성취하리라. 89년생 변화의 양상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01년생 물질적인 면은 양호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 따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55</p>	<p>35년생 중대한 구도이니 정황에 맞게 도모해야 한다. 47년생 여러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게 되리라. 59년생 막히거나 형틀어진 것이 해결 될 수도 있다. 71년생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83년생 한 번 빠져들면 헤어지지 못하리라. 95년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05, 75</p>